



우리 본당 가족사진 <주안7동 성 마르코 성당>, 2023년 설립

입당송 | 시편 31(30),3-4 참조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 예레 17,5-8

화답송 | 시편 1,1-2.3.4와 6(◎ 40[39],5ㄱ)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

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제2독서 | 1코린 15,12.16-20

복음 환호송 | 루카 6,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 루카 6,17.20-26

영성체송 |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행복하세요?

교구 하늘의 문 묘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맑은 소임이 있어 묘지에 방문합니다.

묘지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적막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모신 분들 중에는 저의 외할머니, 나 굴리엘모 주교님,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 동료 사제들도 계십니다. 제 인생의 한 부분을 같이 하였던 그리운 분들입니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여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곳이 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움과 이별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모두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한세상을 치열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사셨기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 앞에 놓인 결과물은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성적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선택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

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모으고 없는 것을 욕심내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만,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고 더 심한 갈증과 배고픔만이 남습니다.

목숨 걸어야 할 것에 걸지 않고, 지나고 나면 너무 덧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흐르고 세상의 시간이 흐른다면 후회와 아쉬움만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 던져놔던 목주 하나 정도.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서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사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성적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느님 편에 서 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오늘 복음의 행복은 내 차지이 될 것입니다.

성인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세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최기산 주교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께 기대고 살자.”



성제현 루카 신부
간석4동 본당 주임

희망의 촛불 밝히기 2_인물 편

미래사목연구소 편집부

2025년, 우리는 모두 희망의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희망을 뿌리 깊이 심고 싹틔우기 위해,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간 성경 속 인물들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틴 인물,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꿈 해몽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운털이 박혀 배신당하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가 감옥에 갇히는 등 갖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향한 꿈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의 헌작 시종장의 꿈 해몽을 통해 재상까지 오르게 됩니다. 결국 헤어졌던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요.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창세 50,24-25)

요셉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대물림받은 ‘희망’을 죽을 때까지 품고 있었지요. 희망이 있었기에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 50,20)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빌론 유배 시절 중 종살이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희망은 ‘바라’(bara)의 하느님, 곧 창조의 하느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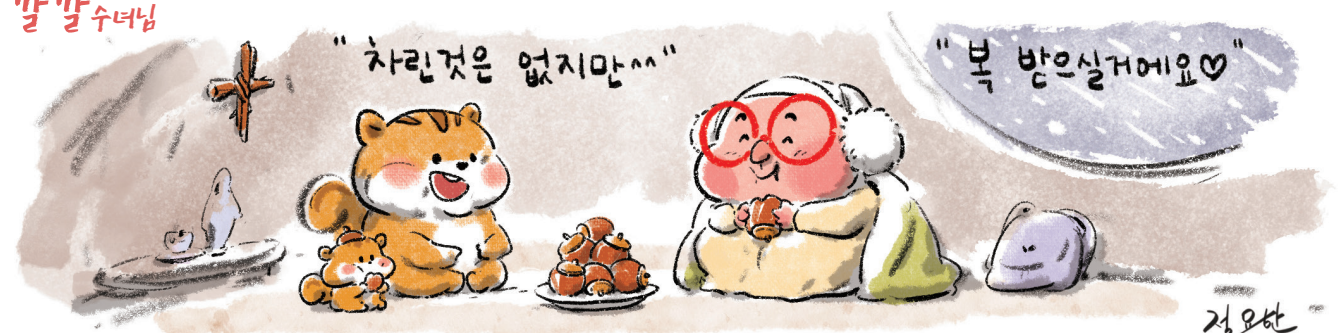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 43,1)

당시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다른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창조의 하느님’만은 희망이 되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배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희망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희망을 잃고 잠시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희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라’(bara)의 하느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라’는 하느님의 창조에만 사용되는 단어로, ‘하느님’만이 주어로 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조하실 때 아무 재료도 없이 지어내셨습니다.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느님을 믿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밑바닥’, ‘나락’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절망이 있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갈갈수녀님



죽음을 배웅하는 봉사

김성인 막달레나 | 작전동 본당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성가가 장례 미사 고별식 때 울려 퍼지면 살며시 흐르는 눈물이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을 적셔준다. 죽음은 곧 살아 있는 자들의 거울인 것 같다. 본당에서 죽은 자들을 많이 접하는 단체가 있다면 아마도 연령회가 아닌가 싶다.

본당에는 많은 단체가 있다. 주로 본당 안에서 많은 봉사를 왕성하게 하지만, 그중 연령회는 본당 밖에서 죽은 자를 통해 신자인 유족들 또는 비신자 유족들 사이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 본당에서 임종한 신자가 있으면 당연지사 연령회를 먼저 찾는다.

인생의 새출발을 하는 결혼식은 좋은 날을 택 일해서 그 시기와 시간을 정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은 시기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연령회에서는 임종 소식을 듣게 되면 본당에 알리고, 먼저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위한 연도를 시작한다. 이후 천주교 장례에 따른 모든 봉사를 2박 3일, 때론 3박 4일을 고인과 유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고인의 마지막 배웅까지 최선을 다한다.

사실 교회 밖에서 큰 선교를 하면서도 때론 장례식장, 장지에서의 식사 문제로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물론 봉사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만 들어야 하고. 대접을 바라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한다는 이유로 대가를 바라고 갑질하는 봉사자들도 있다. 우리는 봉사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2코린 2,14-15 참조)

봉사는 반드시 평가도 받지만, 서로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하느님 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기에 봉사에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사도 바오로는 말씀하셨다. ‘일한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노장들로 구성된 연령회는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준 원로이기도 하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봉사로 열정을 쏟는 그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봉사하지 않도록 본당의 관심 어린 사랑이 동반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가수분의 노래가 생각난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분의 노랫말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다.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바로 하느님의 시간 속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과 죽음도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하느님 안으로 선했던 것도, 악한 것도 흘러 들어간다.

“명성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 모든 인간의 종말이 있으니 산 이는 이를 마음에 새길 일이다.”(코헬 7,1-2)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테살 4,3)



성소국은 예비 신학생들에게 교리교육, 성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 또래와 신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신학교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동반하는 성소의 못자리입니다. 하느님의 다양한 성소의 씨앗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예비신학교에 소중한 자녀들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성소국의 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 교구 성소국 032-765-6965



| 2025년 예비신학교 동계캠프

성소국(국장 이충현 엘리야 신부) 주관으로 6일(목)~7일(금) 1박 2일 일정으로 예비신학교 지도자 신학생들과 예비 신학생들(고등부)이 교구청에서 2025년 예비신학교 동계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을 주제로 1부 ‘희망의 순례’에서는 서소문, 새남터, 절두산 성지 등을 방문하여 신앙의 의미를 되새겼고, 2부 ‘푸르른 그대가 희망이어라’에서는 신학생들과 예비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 성가를 부르고 액션송을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 ‘희망의 레이스’에서는 신학생들과 예비 신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운동하며 형제적인 우정을 다졌고, 파견 미사로 동계캠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예비 신학생은 “이번 캠프를 통해 신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또래 예비 신학생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이로 인해 신학교 입학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2025년 예비신학교 모임 안내

모임 일자	3/16(인천교구청), 4/27(넷째 주), 5/11(신학교), 6/15			
학년 구분	중1, 중2	중3, 고1, 고2	신학과지원반	김포·강화
모임 시간	11:00~13:00	14:00~16:00	11:00~16:00	13:30~15:30
	점심식사 제공	간식 제공	점심식사 제공	간식 제공
모임 장소	대건고등학교			김포 성당

· 3월 예신모임은 교구청 보니파시오 강당에서 입학 미사로 시작합니다.

13:50~15:50 / 고3, 지원반 11:00~16:00

· 기본적으로 예신 모임은 셋째 주, 4월은 부활 대축일로 넷째 주에 진행됩니다.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장준 필립보 2016.02.18 선종



'믿음과 은총' 코너에 실릴 사진과 일상 신앙 수기를 모집합니다.

익명으로도 게재가 가능하며, 띄어쓰기 포함 1,600자 분량의 원고(A4)를 hongbo032@daum.net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선정 후 주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구청

17차 가톨릭 약혼자 주말

일시: 5/16(금) 20:30~18(주일) 16:00
 장소: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 예비(신혼)부부, 사제, 수도자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노인사목부 교육

일시: 3/10~6/9 매주(월) 교구청 내
 대상: 교구 모든 신자
 ·교리교육 10:00~12:00
 참가비: 15만원(교재 포함),
 노인대학연합회 가입분당 13만원
 교육: 노틀담교리교재연구소
 ·초 조각 14:00~16:00
 참가비: 13만원(재료비 별도)
 교육: 노틀담교리교재연구소
 ·성경교육(예언서) 10:00~12:30
 참가비: 13만원(교재 별도),
 노인대학연합회 가입분당 10만원
 교육: 성바오로딸수녀원
 문의: 032-761-0618 노인사목부

교육 | 미사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 세계 사도직)

일시: 9:30~12:30 보니파시오 대강당
 회비: 3만원
 [제1주] 3/10(월) 소개강의 및 세속정신 없애기1:
 신동규 다미안 마리아
 [제2주] 3/17(월) 세속정신 없애기2: 양창우 요셉
 [제3주] 3/24(월) 자기자신 알기: 정병덕 라파엘
 [제4주] 3/31(월) 성모 마리아를 알고 사랑하기:
 이병근 대건안드레아
 [제5주] 4/7(월) 예수님 알고 사랑하기:
 김연준 프란치스코
 [제6주] 4/14(월) 봉헌식 및 봉헌의 생활화:
 김석훈 안드레아
 문의: 010-8702-5185 회장 조경희

하느님 자비의 사도모임(천주교 사도직 팔로티회)

강의, 성시간, 미사
 일시: 2/18(화) 14:00~17:0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B1
 문의: 010-3809-0200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3/8(토)~9(주일), 4/12(토)~13(주일)
 [3박 4일] 2/17(월)~21(금)
 [4박 5일] 2/26(수)~3/1(토)
 [8박 9일] 3/13(목)~21(금), 4/23(수)~5/1(목)
 [40일] 4/21(월)~5/30(금)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3/1~4, 9~12, 4/2~4,
 4/12~15, 27~30, 5/4~7, 26~29
 생태순례: 3/17~19, 22~24, 28~30,
 4/7~9, 22~24, 5/10~12,
 5/15~17, 20~22, 6/20~22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눈꽃산행: 2/21~23, 25~27
 일시: 3/1~3, 8~10, 13~16(추자도 포함),
 3/18~20, 23~26(추), 29~31,
 4/1~3, 5~8(추), 10~12, 14~16, 21~23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평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2/21~24, 3/14~17, 4/18~21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평정

일시: 2/22(토) 14:00~23(주일) 14:00
 장소: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강사: 김성대 안드레아 신부, 한영임 수산나
 셔틀버스: 12:20 출발 조치원역,
 12:40 출발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노틀담실천교리 월요교육

일시: 3/24, 4/28, 5/19, 6/16 13:00~16:30
 (일일연수 신청 가능)
 장소: 서울 종로 북촌 노틀담교육관
 대상: 첫영성체, 예비자, 교리교육담당자
 인스타그램 「노틀담실천교리」
 문의: 010-8829-6292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3/14(금)~22(토)
 장소: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문의: 010-3340-0201

성가정 성령 기도회

미사, 말씀, 치유안수, 기도, 찬양
 일시: 매주(월) 19:00~22:00
 장소: 만수2동 성당
 대상: 누구나
 문의: 010-9227-3265

월요 낮 기도회

갈멜산 성령새신봉사회: 말씀 치유, 예언, 안수
 일시: 12:30~17:00(16:00 파견미사)
 장소: 부천 가톨릭교육관
 지도: 오용호 세베리노 신부
 문의: 010-8829-2038 회장 조홍호 사라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

일시: 2/22(토) 11:00 사회사목센터
 문의: 032-761-3992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2/20(목) 14:00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2-3673-2525

이승훈 베드로 성지 2월 후원회 미사

일시: 2/20(목) 15:00 (15:20 목주기도)
 장소: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무네미로 143)
 문의: 032-765-6916

2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2/18(화) 14:00 도화동 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일시: 2/25(화) 11:00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영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 집 | 일반**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드림로 472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강화꽃동네 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여자 어르신 케어 요양 보호사
 문의: 010-7171-9503

교구 가톨릭스카우트 모집

신앙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스카우트 활동
 대상: 유치부~대학생까지 대장, 대원 모집
 문의: 010-2484-0072

솔샘나우리상담센터(샬트르성바로수녀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치료놀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대상: 아동 및 청소년
 국가바우처 사용 가능
 문의: 032-872-2731
www.solsam.or.kr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 모집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우편)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추가 모집: 2/28(금)까지 원서 접수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참조

시스띠나음악원 수강 모집(신촌)

성가 발성 교실, 그레고리오성가(지휘, 반주, 기조)
 문의: 010-9842-8818

산타크로체 합창단 2025 정기연주회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 기원
 연주: "칸타타"와 비발디 "글로리아"
 일시: 2/22(토) 17:00
 장소: 엘림아트센터(청라) 엘림홀
 문의: 010-9678-4201(공연·입단)

예수성심 인천천교회(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순례 | 기타**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3/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8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5/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6/3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470만원
 7/4 성모 발현 성지 4개국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가톨릭신문 해외 성지순례

5/6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460만원
 5/9 회년 이탈리아(독일항공) [12일] 435만원
 5/22 성모 발현지 피정순례 [12일] 47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3/18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8km [12일]
 4/22, 5/13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원
 5/3 체코, 폴란드, 발칸 메주고리에 [15일]
 5/20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6/5 세계 올드레야 로마 대회 참가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이오소피아 마카오, 홍콩 성지순례

4/24(목)~27(주일) 대한항공
 문의: 032-666-9385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바오로 국내·외 성지순례

·3/22(토)~23(주일) 대구대교구 2차:
 계산 성당, 관덕정, 복자, 비산,
 세방골, 성모당, 성직자 묘지
 ·3/29(토)~31(월) 제주교구:
 추자도, 관덕정, 황사평, 김기량,
 정난주, 새미 은총의 샘, 유수성지
 ·5/7(수)~18(주일) 성모발현지 [12일]
 루르드, 파티마, 반뇌, 몬세라트
 문의: 010-9200-3532

미카엘 국내·외, 제주도 성지순례

4/22 다낭(성모 발현지) [5일]
 4/28 홍콩, 마카오 [4일]
 5/25 그리스, 튀르키예 [12일]
 3/11 전주, 광주
 5/12 원주, 춘천
 제주(추자도)순례 6명부터 출발
 문의: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성소모임**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모 성심을 통해 천주성삼계
 영광을 봉헌하려는 수도 성소자 꿈나무
 청소년, 청년의 연락 희망
 문의: 010-5195-3217 성소부

| 교구 안내 | 2025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이준범 요한 사도 은계
 홍석준 프란치스코 마산동
 최상윤 미카엘 산곡3동

이상렬 라파엘 김포
 조현 레오 사우동
 장민준 루도비코 마리아 만수6동

박서준 마르코 주안7동
 김리안 알베르토 성김대건

8명의 신입생들을 위해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